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ENVIRONMENT

지평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해야 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그린오피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인류의 당면 과제입니다. 지평은 로펌으로서의 이익창출 외에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경영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린오피스 정책

PAPERLESS OFFICE

지평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고 자료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Paperless Office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프린터기 사용을 줄이면, 인쇄로 인한 탄소와 열 그리고 쌓여있는 서류로 인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감소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기청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Paperless office와 다른 사무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유해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	일반 사무실(예 1)	일반 사무실(예 2)	PAPERLESS OFFICE
포름알데히드	0.018 mg/m ³	0.031 mg/m ³	0.009 mg/m ³
미세먼지	012 µg/m ³	010 µg/m ³	011 µg/m ³
휘발성유기화합물	0.139 mg/m ³	0.190 mg/m ³	0.072 mg/m ³

지평은 사내 웹진으로 공기청정도 측정실험 결과를 알리는 등 Paperless Office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 환경의 장점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평 구성원의 1인당 복사용지 사용량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인당 복사용지 사용량은 4.13박스로, 2016년 5.39박스에서 약 23%가 줄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복사용지 1BOX(2,500장)	총 소비량	1,420	1,290	1,340	1,345
	1인당 소비량	5.39	4.69	4.49	4.13

친환경 차량 정책

지평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1대 중 9대가 친환경 차량이고, 이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7대, 전기차가 2대입니다. 업무 차량 선택 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한 건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지평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매일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일괄적으로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등캠페인은 환경실천소모임의 제안에서 시작되어 전사적 정책으로 자리잡은 지평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입니다. 지평의 서울사무소는 지속적인 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 전체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인원을 반영하여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19년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77.47kWh로 그 이전 3개년 평균의 약 5.7%인 125kWh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소나무 8.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020년에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도 줄여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2020년에도 자동소등을 계속 실천할 예정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기(kWh)	총 소비량	587,196	595,924	658,610	675,178
	1인당 소비량	2232.68	2167.00	2210.10	2077.47
수도(t)	총 소비량	273	266	304	362
	1인당 소비량	1.04	0.97	1.02	1.11
CO ₂ 발생량 ¹⁾ (Kg)	총 발생량	364,445.5	366,191.4	408,037.8	435,019.5
	1인당 발생량	1,385.72	1,331.61	1,369.25	1,338.52

1) CO₂ 발생량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 활동

지평은 2015년 9월부터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사내 소모임인 환경실천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프로젝트들을 논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하는 다양한 캠페인들은 지평의 환경 정책 수립에도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한 '전기절약 캠페인'을 중심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실천소모임은 '중고책방' 등과 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운동을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재사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 및 사용을 독려하고, '환경실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



박시원 과장 (환경실천소모임)

환경실천소모임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빌링팀의 안현정 대리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환경실천소모임의 회원은 모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저는 어떠한 고민이나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무엇가요?

환경실천소모임에 참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보호는 저에게 잘 와닿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감명을 받아, 이를 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환경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기후변화'와 '원자력 발전에 따른 방사능 폐기물 유출' 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새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과 공기, 깨끗한 물,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평과 지평 구성원에게 바라는 것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은 모임의 취지, 회원들의 인품, 회원들과 환경과 관련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 모두 너무 매력적인 모임입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과정 또한 상당히 즐겁습니다. 지평 구성원들이 환경실천소모임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